

##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 Τηρήσω ἐκ를 중심으로 —

한철흠\*

### 1. 문제 제기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어떤 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sup>1)</sup> 『개역개정』은 요한계시록 3:10을 번역하면서 그리스어 원문에 있는 특정한 전치사를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문에 없는 동사를 삽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번역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요한계시록 3:10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한다.

“ὅτι ἐτήρησας τὸν λόγον τῆς ὑπομονῆς μου, καὶ γὰρ σε τηρήσω 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 τῆς μελλούσης ἔρχεσθαι ἐπὶ τῆς οἰκουμένης ὅλης, πειράσαι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sup>2)</sup>

이 구절을 축자적(逐字的)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scratch@kbtus.ac.kr](mailto:scratch@kbtus.ac.kr). 본 연구는 2021년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개역개정』 계 22:18-19).

2) 본 논문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SBLGNT (SBL Greek New Testament)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라.<sup>3)</sup>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개역개정』 — 그리고 『개역』 — 의 번역은 원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sup>4)</sup>

『개역개정』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번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이다. 이것은 *καὶ γὰρ σε τηρήσω 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를 번역한 것인데, 앞서 소개한 필자의 축자적 번역 “내가 또한 …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라”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로 『개역개정』은 “… (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 *ἐκ*를 번역하지 않았으며, 둘째로 원문에 없는 “면하게 하리니”를 첨가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개역개정』과 매우 비슷하게 *ἐκ*를 번역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를 첨가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나도 너를 지켜 …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시험의 때 혹은 고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과 같이 *ἐκ*를 번역하지 않았지만,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과 달리 시험이나 고난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표현을 첨가하지 않았다.

『공동개정』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새번역』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 주겠다.”

『공동개정』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이 닥쳐올 때, 즉 환난이

3) 이 구절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 *πειρασμός*의 의미는 나중에 논의될 것이다.

4) 『개역개정』과 『개역』의 번역은 사실상 똑같다. 『개역개정』은 『개역』의 “너를 지키어”를 “너를 지켜”로 바꾸었을 뿐이다.

임박할 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환난을 당하기 직전에 보호받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새번역』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가 시험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 줄 것이다.

요약하자면,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 혹은 고난을 비켜 갈 것이다. 『공동개정』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직전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와 사뭇 다르게, 『새번역』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 중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처럼 원문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한글 번역들과 달리, 영어 성경들은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하게 ἐκ를 번역하고, 다른 표현을 첨가하지 않았다. 이 번역들에 따르면, 예수는 시험 혹은 시련의 시간으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ASV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rial”
NKJ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ESV; NRS; RSV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NAS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NIV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NLT	“I will protect you from the great time of testing”

영어 표현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켜 준다)은 “keep you from undergoing the trial”(네가 시험을 겪지 않도록 지켜 준다)을 의미할 수도 있고, “keep you right through the trial”(네가 시험을 통과할 때 지켜 준다)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어 원문은 두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sup>5)</sup>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중의성(重義性)을 살리는 축자적 한글 번역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전치사 ἐκ의 중의성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τηρεῖν ἐκ 및 유사한 표현들이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3:10의 τηρεῖν ἐκ에 내포된 중의성을 분석한 후에, 5장에서는 요한계시록 3:10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와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할 것이다. 6장에서는 『개역개정』 번역에 함축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3:10의 중의성을 살리는 축자적 번역이 최선의 번역임을 보이고자 한다.

5) L. Morris, *Revelati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7), 82.

## 2. 전치사 ἐκ의 중의성

요한계시록 3:10의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ἐκ의 의미이다. 이 전치사는 중의성을 띠는데, 이는 τηρεῖν ἐκ의 중의성으로 이어진다. 전치사 ἐκ의 첫째 의미는 출처(source)이고 둘째 의미는 분리(separation)인 반면에, 전치사 ἀπό의 첫째 의미는 분리이고 둘째 의미는 출처이다.<sup>6)</sup> 그렇지만 ἐκ와 ἀπό의 용법은 종종 겹친다.<sup>7)</sup> 따라서 ἐκ는 출처를 의미할 수도 있고,<sup>8)</sup>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

ἐκ의 두 의미는 σώζειν ἐκ(… [으]로부터 구원하다)에 잘 드러난다. 유다서 1:5에 사용된 σώζειν ἐκ에서 ἐκ는 출처를 의미한다. 유다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λαὸν ἐκ γῆς Αἰγύπτου σώσας), 믿지 않은 자들 나중엔 멸하셨음을 상기시킨다. 여기에서 애굽 땅으로부터의 구원은 앞서 애굽 땅에 있던 백성을 구출(救出)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요한복음 12:27에 사용된 σώζειν ἐκ에서 ἐκ는 분리를 뜻한다. 예수는 아버지께 σώσον με ἐκ τῆς ὥρας ταύτης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바로 철회한다. ‘이때’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말이므로 여기에서 구원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면제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동일한 표현인 σώζειν ἐκ에서조차 ἐκ는 출처뿐만 아니라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3:10의 해석에서 이 전치사의 사전적 의미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3. τηρεῖν ἐκ 및 유사 표현들의 용례

### 3.1. διατηρεῖν ἐκ(행 15:29)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τηρεῖν의 강

6)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368, 371.

7) Ibid., 363. 심지어 살전 2:6에서 ἀπό와 ἐκ는 번갈아 사용된다(Ibid.). οὔτε ζητοῦντες ἐξ ἀνθρώπων δόξαν, οὔτε ἀφ’ ὑμῶν οὔτε ἀπ’ ἄλλων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개역개정』).

8) *BDAG* 사전에 따르면, 계 3:10에 사용된 (τηρεῖν) ἐκ는 이 의미를 지닌다(W. Bau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96.)

조형인 διατηρεῖν이 ἐκ와 함께 사용된다. ἐξ ὧν διατηροῦντες ἑαυτοὺς εὖ πράξετε (“너희가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행 15:29하). 이것은 같은 구절(행 15:29상)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ἀπέχεσθαι)을 말한 직후에 등장한다. 따라서 διατηρεῖν ἐκ와 ἀπέχεσθαι의 의미는 같고, 전자에 사용된 전치사 ἐκ와 후자에 사용된 접두사 ἀπ(ό)-의 의미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즉 이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ἐκ는 물리적 분리를 의미한다.

### 3.2. τηρεῖν ἐκ(요 17:15)

요한계시록 3:10 이외에, 신약성경에서 τηρεῖν ἐκ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7:15뿐이다. 이 구절에서 예수는 아버지께 제자들을 지켜 달라고 기도한다. οὐκ ἐρωτῶ ἵνα ἄρῃς αὐτοὺ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ἀλλ’ ἵνα τηρήσῃς αὐτοὺς ἐκ τοῦ πονηροῦ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혹은 악한 자]으로부터9) 지키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요 17:15).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요 17:14),<sup>10)</sup> 세상은 악한 세상을 가리킨다.<sup>11)</sup> 따라서 17:15의 “악”은 세상의 악을 가리킨다. 예수는 제자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리되어 보호받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의 공격을 받지만,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sup>12)</sup> 요한복음에서 τηρεῖν ἐκ가 악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영적 보호를 의미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 τηρεῖν ἐκ는 시험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영적 보호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 3.3. τηρεῖν ἀπό(약 1:27)

τηρεῖν ἐκ와 비슷한 τηρεῖν ἀπό가 야고보서에 등장한다. 신약성경에서 전

9) ἐκ τοῦ πονηροῦ는 ‘악으로부터’로 번역될 수도 있고, ‘악한 자로부터’로 번역될 수도 있다.

10)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개역개정』 요 17:14).

11) 이와 비슷하게 요 7:7에서 “세상”(κόσμος)은 악한 세상을 가리킨다(“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개역개정』).

12) 『개역개정』의 번역 “내가 비유는 것은 …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

치사 ἐκ와 ἀπό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이상, 이 두 동사구(動詞句)는 사실상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은 … ἄσπιλον ἑαυτὸν τηρεῖν ἀπὸ τοῦ κόσμου(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 없게 지키는 것)이다’(약 1:27). 이 구절에서 ‘세상’(κόσμος)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환경을 의미한다.<sup>13)</sup>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방해하는 세상의 악, 곧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 것이다.<sup>14)</sup> 야고보서 1:27에서 ‘세상’이 장소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듯이, 요한계시록 3:10에서 시험의 ‘시간’은 시험을 받는 물리적 기간이 아니라 시험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다.

#### 4. 요한계시록 3:10의 τηρεῖν ἐκ의 중의성

전치사 ἐκ의 해석에 따라 τηρεῖν 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의 해석은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τηρεῖν ἐκ의 중의성을 살펴보면, ἐκ의 목적어인 ‘시험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4.1. 시험의 시간에서 꺼내어 지켜 줌

ἐκ가 출처를 의미한다면, τηρεῖν ἐκ는 시험의 시간에 처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꺼내어 지켜 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 줌은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면제함을 의미하지 않고, 시험의 시간에 처한 그들을 조만간 구출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유다서 1:5의 σώζειν ἐκ 용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꺼내는 동작은 상황의 변화를 암시하는데, τηρεῖν은 상황의 변화보다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오니(David E. Aune)의 지적대로, 요한계시록 3:10에서 τηρεῖν은 어떤 상태를 지속함을 의미하고, 예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상황이 다가올 환난의 시간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

13) D. G. McCartney, *Jame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129.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개역개정』과 『새번역』 등에서는 κόσμος를 ‘세속’으로 번역하였다.

14) 약 1:27의 ‘세상으로부터’는 요 17:15의 ‘악으로부터’와 사실상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 즉 영적으로 보호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인간의 책임을 부각하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임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지키다’를 의미하는 동사 τηρεῖν 혹은 διατηρεῖν과 함께 사용된 전치사 ἐκ와 ἀπό 중에 출처를 의미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sup>16)</sup> ‘지키다’를 의미하는 동사와 같이 사용되는 전치사는 출처보다는 분리를 의미한다.<sup>17)</sup>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τηρεῖν ἐκ를 하나의 동작으로 보지 않고 두 개의 동작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토마스(Robert L. Thomas)는 τηρεῖν ἐκ가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후에 지켜 줌(preservation after removal from the period)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sup>18)</sup> 그러나 τηρεῖν이라는 하나의 동사에 벗어나게 함과 지켜 줌이라는 두 동작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ἐκ의 출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

## 4.2. 시험의 시간을 면하도록 지켜 줌

상태의 지속을 함축하는 τηρεῖν의 의미를 살리려면, ἐκ가 분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δια)τηρεῖν ἐκ에서 ἐκ는 물리적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영적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우선 사도 행전 15:29의 (δια)τηρεῖν) ἐκ처럼, 요한계시록 3:10의 (τηρεῖν) ἐκ는 물리적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10에서 예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시간을 면하도록 지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는 이 의미를 담는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2:27의 σώζειν ἐκ 용법과 비슷하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환난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관점과 사뭇 다르다는 약점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죽음

15) D. E. Aune, *Revelation 1-5*, WBC 52A (Dallas: Word Books, 1997), 239.

16) 다음 예들이 보여 주듯이 φυλάσσειν ἀπό(…로부터 지키다)의 ἀπό 역시 출처가 아니라 분리를 의미한다. φυλάσσεσθε ἀπό πάσης πλεονεξίας(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눅 12:15). φυλάξει ἀπό τοῦ πονηροῦ([주가]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리라, 살후 3:3).

17) ἐκ가 출처를 의미한다고 보고 계 3:10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움은 브라운(Schuyler Brown)의 해석에 잘 드러난다. 브라운은 분리를 의미하는 ἀπό와 달리 ἐκ는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꺼내지는 경우에 사용되고, 따라서 당사자가 이전에 그 상황에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예수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구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예수는 시험의 시간 중에 특별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해석한다(S. Brown, “‘The Hour of Trial’ [Rev 3:1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5:3 [1966], 310).

18) R. L. Thomas, *Revelation 1-7: An Exegetical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92), 285.

당한 예수를 증언하느라 밧모섬으로 유배되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요한(계 1:9), 그리고 환난을 받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한 예수(계 2:10)가 독자들에게 고난으로부터의 열외(列外)를 당근책으로 제시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양을 따르는 독자들에게 순교가 복이라고 말한다(계 14:13).<sup>19)</sup> 마운스(Robert H. Mounce)는 요한계시록 3:10의 요지를 통찰력 있게 지적한다. 교회가 시험의 시간에 그리스도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큰 시험의 시간에 교회에 신실할 것이다.<sup>20)</sup>

#### 4.3. 시험의 시간을 버티도록 지켜 줌

요한계시록 3:10의 ἐκ가 물리적 분리가 아닌 영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한복음 17:15의 τηρεῖν ἐκ가 악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함, 즉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하듯이, 요한계시록 3:10의 τηρεῖν ἐκ는 시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함, 즉 시험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시험의 시간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의 도움으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이 해석은 τηρεῖν ἐκ의 목적어인 시험의 ‘시간’을 다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1:27에서 τηρεῖν ἀπό의 목적어인 ‘세상’은 장소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악 곧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상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10에서 시험의 ‘시간’은 시험의 물리적 기간이 아니라 시험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징한다. 예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지켜 줌으로써 그들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전치사 ἐκ가 어떤 영향력으로부터의 분리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는 요한계시록 15:2에서도 발견된다.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이긴 자들(τοὺς νικῶντας ἐκ τοῦ θηρίου καὶ ἐκ τῆς εἰκόνης αὐτοῦ καὶ ἐκ

19)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개역개정』, 계 14:13상).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οἱ νεκροὶ ἐν Χριστῷ, 4:16)은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죽은 자들을 가리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οἱ νεκροὶ οἱ ἐν κυρίῳ ἀποθνήσκοντες ἀπ’ ἄρτι)은 순교자들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극심한 박해 중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0) R.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rev. e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103.



τοῦ ἀριθμοῦ τοῦ ὀνόματος αὐτοῦ)을 본다. 마운스는 νικῶντας ἐκ가 황제 숭배로 촉발된 극심한 시련으로부터의(‘from’ 혹은 ‘out of’) 구원을 암시한다고 본다.<sup>21)</sup> 그러나 여기에서 승리한 자들은 시련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시련에 정면으로 맞서 순교한 자들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므로(계 13:15), 요한계시록 15:2에서 짐승의 우상을 이긴 자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로 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앎으로써 이긴다(계 12:11).<sup>22)</sup> 달리 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이긴다는 말은 짐승의 세력이 가하는 박해를 받지만 그 부정적 영향력을 이긴다는 말이다.

이 해석은 환난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관점과 부합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예수는 환난을 받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한다(계 2:10).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자신도 예수를 증언한 탓에 밧모섬으로 유배되었다(계 1:9).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양을 따르는 독자들에게 순교가 복이라고까지 말한다(계 14:13).

## 5. 요한계시록 3:10의 “시험”의 의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πειρασμοῦ) 시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πειράσαι)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시간이다. 여기에서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요한계시록 3:10의 해석은 사뭇 달라진다. 본 장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함으로써 “시험”의 대상과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통해 τηρεῖν ἐκ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5.1. 심판으로서의 시험

요한계시록 3:10의 시험을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래드(George E. Ladd)는 3:10의 시험을 하나님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쏟으시는 진노로 이해한다. 시험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이교도들에게 임하지만, 박해를 받는 교회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보호받는다.<sup>23)</sup>

21) Ibid., 285, 각주 7번.

22)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개역개정』 계 12:11).

23) G. E. Lad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W. B. Eerdmans

오스본(Grant R. Osborne)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3:10에서 “온 세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시험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불신자들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sup>24)</sup>

## 5.2. 심판 및 검증으로서의 시험

요한계시록 3:10의 시험은 불신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이중 목적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브라운(Schuyler Brown)은 *πειρασμοῦ*와 *πειράσαι*의 대상과 의미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3:10의 범세계적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기에 *πειρασμός*라고 불린다.<sup>25)</sup> 동시에 이 종말론적 환난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시험하기 위한(*πειράσαι*) 것인데, 여기에서 시험함은 괴롭힘을 의미한다.<sup>26)</sup> 시험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협이 되지만, 주로 교회의 적들에게 미치는 것이다.<sup>27)</sup>

이와 비슷하게 빌(G. K. Beale)에 따르면, 시험은 신자들의 믿음을 정화하고 강화하면서,<sup>28)</sup> 동시에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이중 목적을 지닌다.<sup>29)</sup> 교회는 시험 곧 환난을 통과하지만 영적으로 보호받는다.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빌은 환난의 초점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고 본다.<sup>30)</sup>

## 5.3. 시험으로서의 시험

이상의 해석들은 모두 3:10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불신자들로 이해하고, 이 구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암시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표현이 불신자들만을 가리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브라운은 “땅에 거하는 자

---

Publishing Company, 1972), 62.

24) G. R. Osborne,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193-194.

25) S. Brown, “The Hour of Trial”, 312.

26) *Ibid.*, 312-313.

27) *Ibid.*, 310.

28)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291.

29) *Ibid.*, 290.

30) *Ibid.*

들”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6:10; 8:13; 11:10; 13:8, 14상, 14하; 17:8)에서 비기독교인들, 즉 교회의 박해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황제 숭배자들을 가리키므로, 이 표현은 3:10에서도 기독교 공동체의 적대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up>31)</sup>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항상 구제 불능의 악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회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던(계 11:10) 땅에 거하는 자들은 큰 지진이 나자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계 11:13), 이 표현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다(계 14:6-7).<sup>32)</sup> 이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3:10의 시험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해석 및 악인들을 향한 심판과 의인들을 향한 검증의 이중적 시험으로 보는 해석은 설득력을 잃는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구절들과 달리 3:10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온 세상”이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 혹은 “땅”<sup>33)</sup> — 에 부정적 뉘앙스가 함축되어 있더라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라는 표현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온 세상”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렇다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따라서 시험의 의미도 이들을 망라하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sup>34)</sup>

더구나 브라운이 인정하듯이, *πειράζειν*이 ‘괴롭히다’를 의미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고,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sup>35)</sup> 논자의 생각에, 요한이 *πειρασμός*를 긍정적 의미로 신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어원이 같은 *πειράζειν*을 부정적 의미로 불신자들에게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한 구절에 사용된 *πειρασμός*와 *πειράζειν*은 품사만 다를 뿐 동일하게 ‘시험(하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문맥에 충실한 해석은 3:10이 의인들과 악

31) S. Brown, “The Hour of Trial”, 309.

32) 게다가 넷째 대접 제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계 16:9)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을 의미한다.

33)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계 13:11).

34) 요한계시록에서 “온 세상”(οἰκουμένη ὅλη)은 점점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3:10에서 시험의 대상인 온 세상은 12: 9에서 미혹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16:14에서 온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터로 소집된다.

35) S. Brown, “The Hour of Trial”, 312.

인들에게 임할 범세계적 시험을 말한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해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로, 이 해석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온 세상(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본문의 지지를 받는다. 둘째로, 이 해석을 따르면 어원이 같은 *πειρασμός*와 *πειράζειν*의 본래 의미를 살리며 두 단어의 의미를 품사 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이 해석은 악인들과 의인들이 모두 시험을 받음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관점과 부합한다. 요한계시록에서 *πειράζειν*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에도 사용되고(2:2),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박해의 경우에도 사용된다(2:10). 그렇다면 3:10은 악인들을 시험하는 2:2과 의인들을 시험하는 2:10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sup>36)</sup>

따라서 3:10의 시험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망라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종의 시험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라고 번역한 『개역개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서두에 제안한 대로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라’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면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하지만 이길 수도 있다는 기점언어(起點言語, source language)의 중의성이 살아난다.

그러나 시험의 성격은 같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이를 시험하기 위한 동일한 성격의 시험이 임할 때, 예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 그리고 이들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 만 도와 줄 것이다. 신자들은 장차 닥칠 범세계적 시험을 피할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있다. 3:10은 시험에 직면한 불신자들의 운명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5.4. 환난으로서의 시험

요한계시록 3:10의 시험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망라하여 세상의 모든 이에게 임하는 모종의 시험이다. 인접 문맥이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언급하므로 ‘시험의 시간’은 지역적 박해를 가리킨다는 헤머(C. J. Hemer)<sup>37)</sup>의 주장에 일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온 세상”에 미치는 시험이라는 점, 3:10에 사용

36) 모리스(L. Morris)는 계 3:10에서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고 본다(L. Morris, *Revelation*, 82).

37) C. J. Hemer,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in Their Local Sett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11 (Sheffield: JSOT Press, 1986), 164-165.

된 *μελλούσης*(‘막 … 하려고 하는’)가 다른 종말론 문맥(1:19; 8:13; 10:7; 12:5; 17:8)에서 재림에 앞서는 최후의 사건들을 가리킨다는 사실, 3:11에 재림이 언급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험의 시간’은 범세계적인 종말론적 사건을 가리킬 것이다.<sup>38)</sup>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호가 필요한 큰 환난에 해당할 것이다. 더구나 ‘시험의 시간’(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에 정관사가 사용된다는 사실로 보건대, 저자는 독자들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리라 가정하였을 테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승리 직전에 있을 큰 고통과 고난의 기간일 것이다(단 12:1; 마 24:15-31; 막 13:7-20; 계 7:14).<sup>39)</sup>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과 복음서에서 말하는 환난은 일맥상통한다. 예수는 소묵시록(小默示錄)이라 불리는 감람산 강화(마 24장, 막 13장, 눅 21장)에서 종말론적 환난에 관해 이야기한다.<sup>40)</sup> 환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θλίψις*인데(마 24:9, 21, 29; 막 13:19, 24),<sup>41)</sup> 마태복음 24:21에 사용된 “큰 환난”(θλίψις μεγάλη)이라는 표현이 정관사와 함께 요한계시록 7:14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오니는 7:14의 “큰 환난”(ἡ θλίψις ἡ μεγάλη)이 3:10의 ‘시험의 시간’을 지칭한다고 본다.<sup>42)</sup> 7:14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는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οἱ ἐρχόμενοι ἐκ τῆς θλίψεως τῆς μεγάλης)이다. 그러므로 3:10의 시험이 7:14의 환난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고난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시험을 비켜 가지 않고 통과할 것이다. 예수는 그 와중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과해 이기는 자들이다.<sup>43)</sup>

38) G. R. Osborne, *Revelation*, 193. 오스본(G. R. Osborne)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든 신실한 신자들과 동일시한다(Ibid., 194). 그렇다면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시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반문할 수 있다.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는 최초의 독자들 — 그리고 많은 후대의 독자들 — 은 자신들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자신들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용했을 것이다.

39) D. E. Aune, *Revelation 1-5*, 239.

40)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는 ‘이런 일’ 곧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가까운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παρουσία)과 세상 끝’의 징조라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1) *θλίψις*는 종말론적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겪는 환난을 의미하기도 한다(요 16:33; 롬 8:35). 누가복음은 *θλίψις* 대신에 *ἀνάγκη*를 사용한다(21:23). 이 단어는 “환난”(『개역개정』), “재난”(『새번역』, 『공동개정』), “고난”(distress)(NIV, NRSV) 등으로 번역된다.

42) D. E. Aune, *Revelation 1-5*, 239.

43) 이처럼 3:10의 *πειρασμός*가 환난을 의미하는 이상, 이 단어를 “환난”으로 번역한 『공동개정』 및 “고난”으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πειρασμός*가 종말론적 환난을 의미하더라도, 이것은 번역의 문제이기보다는 해석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단어를 굳이 “환난”이나 “고난”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개역개정』처럼 그 일차적 의미인 “시험”을 살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낫다.

## 6. 『개역개정』 번역의 함축적 의미

요한계시록 3:10의 『개역개정』 번역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는 번역가의 의도 및 의식과 상관없이 특정한 신학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교회가 환난을 피해갈 것이라고 보는 대표적인 해석은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rapture)될 것이라고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이다.<sup>44)</sup>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따르면, 대환난 전에 교회는 지상에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지상에서는 대환난이 일어난다. 예수의 지상 천년왕국은 대환난 후에 실현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대주의 학자 중의 한 명인 월부르드(John F. Walvoord)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3:10은 환난 전 휴거설에 딱 들어맞는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대환난을 가리키는데, 교회를 대환난으로부터 구하는 사건은 다름 아니라 휴거이다.<sup>45)</sup> 요한계시록 3:10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 신학과 잘 맞아떨어진다. 『개역개정』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개역개정』의 번역이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에 내포된 두 의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번역에서 기점언어의 중의성은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 특별히 기점언어의 중의성을 희생하고 선택한 의미가 특정 신학의 근거 본문으로 사용될 때는 더욱 그렇다. 굳이 특정한 전치사를 해석하지 않고 특정한 동사를 삽입하여 자유롭게 번역할 이유는 없다. 본 연구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도록 보호받을 것이라고 ‘해석한’ 『개역개정』의 번역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버티도록 보호받을 것이라는 두 번째 해석도 포함하는 독자적 번역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3:10의 중의성이 저자의 의도임을 의미하

44) 환난 후 휴거설은 다음을 참조하라. R. H. Gundry, *The Church and the Tribulation: A Biblical Examination of Posttribulationism* (Grand Rapids: Academic Books, 1973).

45) J. F. Walvoord, *Revelation,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Chicago: Moody Publishers, 2011), 84. 교회는 계 6-19장에 묘사된 환난 이전에 구원을 받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계 7:4)은 환난을 통과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휴거는 다름 아닌 살전 4:13-17에 묘사된 사건이다(Ibid., 85). 살전 4장이 휴거를 언급하는지의 문제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넓게는 성경 전체, 좁게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문제점’을 요약한 다음을 참조하라. B. Witherington III, *Revelation,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60-262.

지는 않는다. 저자는 이 구절의 중의성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시간을 피해갈 것이라는 약속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잘 견딜 것이라는 약속은 너무나 다른 메시지로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0의 중의성이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요한계시록 및 다른 신약성경 책들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저자의 의도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신약성경은 성도들의 고난에 관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 겪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요 16:33). 천국은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다(마 5:10).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참을 뿐만 아니라(롬 12:12),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한다(롬 5:3).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행 14:22). 히브리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은 자들을 언급한다(히 11:35).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환난에 처해지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마 24:9).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지만(마 24:22), 택하신 자들이 환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상은 순교가 복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14:13에서 절정에 달한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하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sup>46)</sup>

## 7.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요한계시록 3:10의 원문에 담긴 중의성을 살리는 번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번역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독자적 번역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전치사 ἐκ의 중의성을 살펴보았다. 신약성경에서 ἐκ와 ἀπό는 용법이 겹치므로, 요한계시록 3:10의 ἐκ는 출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 3장에서는 τηρεῖν ἐκ 및 이와 유사한 표현들의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도행전 15:29의 διατηρεῖν ἐκ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자신을) 지킴을 의미하는 반면에, 요한복음 17:15의 τηρεῖν ἐκ 및 야고보서 1:27의 τηρεῖν ἀπό는 영적으로 분리하여 지킴, 즉 영적 보호를 의미

46) 따라서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번역한 『새번역』이 『개역개정』보다 저자의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번역보다는 해석의 문제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이 해석을 번역에 그대로 반영한다면 기점언어의 중의성은 또 다시 상실될 것이다. 번역가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은 이상 자신의 해석을 최소화하고 기점언어에 충실하게 중의성을 살리는 독자적 번역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다.

4장에서는 *τηρεῖν 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의 중의성을 분석하였다. 전치사 *ἐκ*가 출처를 의미한다면 이 표현은 시험의 시간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꺼내어 지켜 줌을 의미하지만, 이 해석은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τηρεῖν*의 의미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ἐκ*가 물리적 분리를 의미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시간을 면하도록 지켜 줌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종말론적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야 한다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메시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ἐκ*가 영적 분리를 의미한다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잘 버티도록 지켜 줌을 의미하는데, 이 해석은 성도들이 환난과 순교를 겁내지 않도록 격려하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 메시지와 잘 맞는다. 예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지켜 줌으로써 그들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5장에서는 “시험”의 대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논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 및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시험이 온 세상에 임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험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망라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였다. 요한계시록 3:10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종말론적 환난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 7:14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통과하는 큰 환난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 3:10의 『개역개정』 번역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에 함축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번역은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환난 전에 교회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상이한 평가를 받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근거 본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굳이 특정한 전치사를 해석하지 않고 특정한 동사를 삽입하여 자유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본 논문에서는 예수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도록 보호할 것으로 ‘해석한’ 『개역개정』의 번역과 더불어, 예수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버티고 이기도록 보호할 것이라는 또 다른 해석도 포함하는 중의적 번역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라”라는 축자적 번역은 이 목적에 잘 부합한다.<sup>47)</sup> 이와 같은 축자적 번역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떤 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따르는 것

47) 물론 본 논문이 줄곧 보여 주었듯이, 이 축자적 번역을 환난 전 휴거와 양립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기도 하다(계 22:18-19).

<주제어>(Keywords)

요한계시록 3:10, 시험의 시간, 환난, 중의성, 축자적 번역.

Revelation 3:10, the hour of trial, tribulation, ambiguity, literal translation.

(투고 일자: 2021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4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Aune, D. E., *Revelation 1-5*, WBC 52A, Dallas: Word Books, 1997.
- Bauer, W.,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Brown, S., “‘The Hour of Trial’ (Rev 3:1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5:3 (1966), 308-314.
- Gundry, R. H., *The Church and the Tribulation: A Biblical Examination of Posttribulationism*,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73.
- Hemer, C. J.,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in Their Local Sett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11, Sheffield: JSOT Press, 1986.
- Ladd, G. E.,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McCartney, D. G., *Jame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Morris, L., *Revelati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7.
- Mounce, R. H., *The Book of Revelation*, Rev. e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 Osborne, G. R.,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Thomas, R. L., *Revelation 1-7: An Exegetical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92.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alvoord, J. F., *Revelation*,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Chicago: Moody Publishers, 2011.
- Witherington, III, B., *Revelation*,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Abstract>

**A New Korean Translation of Revelation 3:10:  
Focused on Τηρήσω ἐκ**

Chul Heum Ha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In Revelation 3:10, Jesus says that he will keep the Philadelphian Christians, who have kept his word of endurance, from the hour of trial.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Greek clause *καὶ γὰρ σε τηρήσω 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 should be translated literally into Korea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translates this clause somewhat liberally as “I also will keep you exempt from the hour of trial.” In so doing,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inserts *exempt* which does not appear in the Greek text. Instead, this article argues for a literal translation: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which is faithful to the Greek text.

The Greek preposition *ἐκ* may mean either *source* or *separation* in the Greek New Testament. When the *ἐκ* of Revelation 3:10 is taken to mean *source*, then Jesus promises to take the Philadelphian Christians out of the trial. But this reading is weakened by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τηρεῖν* – *to cause a state to continue* – scarcely means *out of*, which presupposes a change of situation. When the *ἐκ* of Revelation 3:10 is taken to mean physical separation, then Jesus is promising to keep the Philadelphian Christians exempt from the hour of trial. This translation, however, is undermined by the fact that Revelation views the eschatological tribulation as something through which the followers of the Lamb must pass.

The easiest and best translation is to construe the *ἐκ* of Revelation 3:10 as meaning spiritual separation or protection, in which case Jesus promises to keep the Philadelphian Christians from being negatively affected by the eschatological trial. The followers of the Lamb will have to pass through the trial but will come out victorious with his special help. This view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Revelation encourages the readers to overcome the eschatological tribulation.

The strength of the suggested literal translation of Revelation 3:10 lies in maintaining the ambiguity of the Greek, which can be taken to mean either that

Jesus will keep the Philadelphian Christians from experiencing the trial, or that Jesus will protect them so that they can overcome the trial. In contrast, the liberal translat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fails to preserve this ambiguity, insofar as it excludes the second meaning.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that the translat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is used as a proof text for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especially the pre-tribulation rapture theory, though my suggested literal translation does not exclude the idea of pretribulational rapture advocated by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ts.